

# 언어의 기능과 어순

현 완 송  
(제주대학교)

Hyun, Wan Song. 2005. Word Order and Language Functions.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2(1), 129-143.

Greenberg(1966) proposed a word order theory on which every other subsequent work on word order relied. From the Greenberg's theory, Bartsch and Vennemann' principle of natural serialization, which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generative grammar, emerged. However, even in the 19th century, some scholars, such as Weil and McKnight showed a keen insight into word order principles. Thanks to them,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largely through the Prague school of linguistics, came into the world. The Prague scholars divided sentences into the semantic level, the grammatical level and the level of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ccordingly they also divided sentence patterns into the semantic pattern, the grammatical pattern and the communicative pattern, which are pieces of evidence that they thoroughly studied language in terms of function. Likewise, Halliday and his followers developed the systemic grammar, which placed a great value on the theme first principle. According to Halliday, any element that can appear on the first position of a sentence is a theme and the other part of that sentence is a theme.. This means that the speaker selects the theme as the starting point of his message and everything that follows it is its comment. As a result, Halliday and his followers have been identified as members of a functional school of linguistics. Finally, Tomlin also has proposed three functional principles that govern the order of major constituents of a sentence. (Cheju National University)

## 1. 서론

Hawkins(1983:19)가 언급하고 있듯이 어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Greenberg (1966)가 창시한 어순유형론(word order typology)에서 비롯된다. Greenberg는 세계 30개의 언어를 비교 분석한 후, 문장의 주요 구성소를 주어(S), 목적어(O), 동사(V)의 셋으로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Fromkin *et al.*(2003:532)의 인용을 이용하여 이 6가지 유형의 언어의 예

- SVO: English, French, Swahili, Hausa, Thai  
 VSO: Tagalog, Irish (Classical) Arabic, (Biblical) Hebrew  
 SOV: Turkish, Japanese, Persian, Georgian  
 OVS: Apalai(Brazil), Barasano(Columbia), Panare(Venezuela)  
 OSV: Apurina and Xavante(Brazil)  
 VOS: Cakchiquel(Guatemala), Huave(Mexico)

그러나 이러한 6가지 유형중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SVO, SOV, VSO의 세가지 유형이며, 이 세가지 유형의 언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주어와 목적어에 선행하는 것이라고 Greenberg(1966:76)는 말한다. 나아가 Greenberg(1966:77-96)는 여러 언어의 비교, 분석에서 45개의 함언적 보편원칙(implicational universals)을 제시한다. 여기서 「함언적」이라는 말은, Greenberg(1966:73)의 표현을 빌면, “given y, we always find x”라는 그의 4번째 보편원칙처럼 특정 언어에서 하나의 현상은 다른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Greenberg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언어 현상들 간의 관련성을 보편원칙으로 제시하였고, 이로써 어순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언어 현상들간의 이러한 관련성은 그가 맨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니다. Bean(1983:18)에 의하면, Weil(1844)은 단어의 순서는 사고의 순서를 나타내며 이 둘의 순서는 동일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문장을 화제(topic)와 논평(comment)으로 나누었다. 그는 또한 「SVX 어순의 언어는 전치사를, SXV 어순의 언어는 후치사를 사용한다」고 말함으로써 이미 언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Weil의 언급 중 화제-논평의 분석은 프라그학파의 기능적 문장 구성론(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이나 Halliday(1985) 등의 체계문법(systemic grammar)의 근간을 이룬다. 또한 후자의 언급은 greenberg(1966) 이래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어순 유형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여 SVX유형의 언어는 전치사 및 명사-수식어 어순을, SXV유형의 언어는 후치사와 수식어-명사 어순을 사용한다는 Weil의 언급은 Bartsch and Vennemann(1973:136-37)의 자연적 배열의 원리(principle of natural serialization)의 근간을 이룬다. Vennemann(1973:40-41)에 의하면, 자연적 배열의 원리는 Bartsch(1973)의 자연적 구성소 구조의 원리(principle of natural constituent structure)에 기초를 둔 이론이다. Bartsch의 원리란 동일한 의미표시계층(hierarchy of semantic representation)에 속하는 요소들은 그들의 계층적 의존관

및 요소들 간의 밀접성(closeness)에 직접 반영되도록 배열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Bartsch and Vennemann(1973:136)은 자연적 배열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또한 그것을 다음 식형으로 형식화 하고 있다.

The principle of natural serialization : The natural way of serializing the operator-operand relationship of all complex expressions is from right to left in OV languages and from left to right in VO languages.

{Operator {Operand}} → { [Operator[Operand]] in OV languages  
 { [[Operand]Operator] in VO languages

Stockwell(1977:73-74)도 언급하고 있듯이, 목적어는 동사에 의해 명시되는 행동적 의미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수식어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가 피운동자 즉 핵어와 운동자 즉 수식어간의 관계와 동일하다면, Bartsch and Vennemann의 자연적 배열의 원리는 모든 계층의 복합표현에 있어서, 핵어와 수식어 사이의 배열순서는 모두 단일 방향적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Clark and Clark (1977:547)는 자연적 배열의 원리를 자연순(natural order)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Natural Order : Constituents in surface structure all tend to have the same order, either Operand + Operator, or Operator + Operand.

한편, Slobin(1979:68-69)이나 Clark and Clark (1977:547)는 어떤 언어에서든 운동자가 앞서거나 피운동자가 앞서거나간에 한 방향으로의 일관성을 지니게 되는 것을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모든 운동자와 피운동자가 일정한 순서를 이룰 때 문장의 처리와 기억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연적 배열의 원리는 생성문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즉, 생성문법은 핵-보충어 매개변항(head-complement parameter)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고, 매개변항의 값으로 선행(head-first), 후핵(head-last)을 취하여 세계의 모든 언어를 선행언어(head-initial language)와 후핵언어(head-final language)로 양분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자연적 배열의 원리 즉 VO언어에서는 핵이 수식어에, OV언어에서는 수식어가 핵에 선행한다는 사실을 형식화 하고 있는 것일

- (1) a.  $X' \rightarrow X YP'$  (Head-first Complement Rule)  
 b.  $X' \rightarrow YP' X$  (Head-last Complement Rule)  
 (2) a.  $X'' \rightarrow (YP) X'$  (Specifier-first Rule)  
 b.  $X'' \rightarrow X'(YP)$  (Specifier-last Rule)

본 연구는 문장의 구성소 또는 구성소의 구성소들간의 순서를 결정하는 원리들을 언어의 기능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기능적 문장 구성론 원리

언어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달기능이라 하겠다. 그런데 언어의 전달기능은 일차적으로 문장이라고 하는 언어단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Chomsky(1957:13)는 언어를 문장의 집합(a set (finite or infinite) of sentences)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전달단위로서의 문장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장은 언어의 전달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구조가 짜여질 것이라는 전제가 어순에 대한 기능적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어순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적 원리들에 대한 언급은 이미 19세기에서도 있었다. 다시 Bean(1983:18)에 의하면, Weil(1844)은 문장을 화제와 논평으로 분석하였다. 즉 화자는 현존(present)하고 있거나 알려진 어떤 것에 의지해서 현존하고 있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실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Weil은 또한 청자에게 화자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 줄 것이 없을 때 즉 기지의 정보가 없을 때는 존재문(existential sentences)이 사용된다고 말함으로써 문장을 철저하게 기능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Bean(1983:19)에 따르면, 이러한 Weil의 이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McKnight(1897)이다. McKnight는 주관적 어순(subjective order)과 객관적 어순(objective order)을 구별하였는데, 전자는 옛 정보-새 정보의 순서로 사고가 진행되는 데 따라 배열되는 기능적 어순 즉 화제-논평의 어순을 뜻하고, 후자는 주어-동사-목적어 등으로 이루어지는 문법적 어순(grammatical order)을 뜻한다.

한편, Hockett(1963:23)는 「인간의 모든 언어는 화제와 논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성소들로 이루어진 양분구조의 절(clause)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도 이러한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것을 하나의 보편적인 어순 원리로 삼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좌측에 있는 구성소가 더 화제적인 요소 즉 새로운 정보를 지니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구성소는 새로운 정보를 지니는 초점(focus)이다.

한편 언어습득의 관점에서 Bates(1976:162, 210)는 두 단어단계의 아동어에서 두 개의 단어는 각각 화제와 논평에 해당된다고 함으로써 화제-논평의 기능적 관계를 더욱 보편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이 단계의 아동들은 화제-논평이 아닌 논평-화제의 어순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전 단계 즉 한 단어 단계의 아동어에서 그 단어는 가장 제보적인(informative) 요소, 즉 논평에 상당하는데(이때 화제에 해당되는 요소는 발화되지 않는다), 아동들이 그것만을 발화하던 습관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성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어순이 화제-논평의 순서로 바뀐다고 한다.

한편 Brown(2000:26)에 의하면 2어 발화(two-word utterance)시기의 아동의 문법을 주축문법(pivot grammar)이라고 하는데 이 문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3) sentence  $\Rightarrow$  pivot word + open word

예	My	cap
	That	horsie
	Allgone	milk
	Mommy	sock

즉, 2어 발화는 임의의 두 단어가 아무렇게나 나열되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주축어(pivot word) + 개방어(open word)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축문법의 내용인데, 이 이론은 Bates의 논평 + 화제 분석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고 있다.

Givón(1979:226-27)은 아동어에서 성인어에로의 발달을 화용양상(pragmatic mode)에서 통사양상(syntactic mode)으로의 이행으로 본다. 다시 말하여 아동어에서의 어순은 화용상의 원칙에 먼저 지배되어 옛 정보(화제)-새 정보(논평)의 어순이 되지만 성인어에서는 어순이 주로 격기능을 표시하게 되어, 화용상의 어순과 통사상의 어순이 상충함에 따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사적 문법표지가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Weil(1844)에서 비롯되어 널리 인정받고 있는 기능적 어순 이론은

로 하여 어순의 기능적 원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Firbas(1974:15-16)에 따르면, Prague 언어학자들은 먼저 문장을 의미적 층위(semantic level), 문법적 층위(grammatical level), 기능적 문장 구성론 층위(level of FSP)의 세 층위로 나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문장의 패턴을 다시 의미적 문장패턴(semantic sentence pattern : SSP), 문법적 문장패턴(grammatical sentence pattern : GSP), 의사전달의 문장패턴(communicative sentence pattern : CSP)의 셋으로 구분한다. 이때 SSP는 행위자(agent)-행위(action)-도달점(goal)의 구조를, GSP는 주어-동사-목적어의 구조를, CSP는 주제(theme)-전이(transition)-논술(rheme)의 구조<sup>1)</sup>를 지닌다고 하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식형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sup>2)</sup>

	<b>John</b>	<b>wrote</b>	<b>a poem</b>
SSP	agent	action	goal
GSP	subject	verb	object
CSP	theme	transition	rheme

이때, CSP가 Prague 학파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능적 문장 구성론(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FSP) 원리를 만족시키는 구조인데, Firbas(1964)는 이 원리를 “the principle of FSP causes the sentence to open with thematic elements and close with rhematic elements”라고 정의한다(Beau (1983:19)). 곧 FSP원리는 문장을 주제적 요소로 시작하여 논술적 요소로 끝나게 해 주는 원리인 것이다. 그러나 FSP원리는 Weil이나 McKnight 등의 이론을 이어받으면서도 그 내용을

1) 대부분의 Prague언어학자들처럼 Firbas(1974:25-26)도 theme과 rheme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자적 요소로서 transition이라는 범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뒤에서 고찰하게 될 Halliday 등의 체계문법(systemic grammar)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문장을 theme-rheme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b>He</b>	<b>has fallen</b>	<b>ill</b>
Firbas	theme	transition	rheme
Halliday	theme	rheme	

2) Danes(1967:500)는 모든 발화는 문법적 구조, 의미적 구조, 화제-논평의 구조를 갖는 세가지 층위(level)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b>John</b>	<b>bought</b>	<b>a book</b>
(1)	Subject	Verbal Predicate	Object
(2)	Agent	Action	Goal

다소 달리한다. 즉 Weil 등은 옛 정보(old information)인 화제로 시작해서 새 정보(new information)인 논평으로 문장이 끝난다고 한 반면, Firbas(1964, 1974) 등은 old / new라는 개념 대신에 제보력등급(degree of communicative dynamism : degree of CD)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능적 어순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old / new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제보력등급의 개념과 그 의미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먼저, Chafe(1976:30)는 옛 정보와 새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Given (or old) information is that knowledge which the speaker assumes to b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addressee at the time of the utterance.

So-called new information is what the speaker assumes he is introducing into the addressee's consciousness by what he says.

즉, 옛 정보는 청자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화자가 추정하는 지식이고 새 정보는 화자가 청자의 의식 속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지식인 것이다.

한편, Prince(1979:267-71)는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또는 복원가능성(recoverability), 현저성(saliency), 공유지식(shared knowledge)의 세 가지 관점에서 기지성(givenness) 즉 옛 정보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삼원적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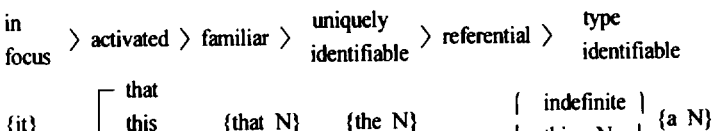
Predictability/Recoverability : The speaker assumes that the hearer can predict or could have predicted that a particular linguistic item will or would occur in a particular position in a sentence.

Saliency : The speaker assumes that the hearer has or could appropriately have some particular thing in his / her consciousness at the time of hearing the utterance.

Shared knowledge : The speaker assumes that the hearer assumes or can infer a particular thing.

이와 관련하여 Gundel *et al.*(1993:275)은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지시표현의 인지적 지위(cognitive status)와 관련하여 기지성(givenness)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계층으로 설정한다.

#### The Givenness Hierarchy



이처럼 여러 각도에서 고찰해 볼 수 있는 기지성 또는 old / new의 개념은 의사전달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장의 구조에 반영되어 보통 old / new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Firbas(1974:23-24)는 old(given) / new라는 개념의 문제점을 통찰하고 기지성(givenness)이라는 개념대신 제보력 등급(degree of CD)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문장의 어순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An unknown man has asked him the way to the railway station.

(5) A girl broke a vase.

위의 예문 (4), (5)에서 'An unknown man'이나 'A girl'은 알려져 있거나 명확한 어떠한 정보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옛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화제로 될 가능성이 적지만 문장의 출발점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old / new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Firbas는 old / new 또는 givenness의 개념을 버리고 제보력등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면 Firbas(1974:19)의 제보력 등급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By a degree of CD carried by a linguistic element, I mean the extent to which the elements contributes towards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cation.

즉, 제보력 등급이란 언어요소가 의사소통을 전개하는데 기여하는 정도, 바꾸어 말하면, 언어요소가 갖는 정보상의 중요성인데, CD가 낮은 요소일수록 문장의 앞쪽에, 높은 요소일수록 뒤쪽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4), (5)에서 'An unknown man'이나 'A girl'이 미지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문두에 위치하는 것은 그것들의 CD 즉 정보상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Firbas(1974:24)는 주제를 "the theme is best defined as constituted by an element or elements carrying the lowest degree(s) of CD within a sentence"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주제가 문장의 첫 위치에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옛 정보이기 때문이 아니고, 가장 낮은 제보력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6) a. He gave a boy an apple.



- (7) a. In order to meet his friend, he went to Prague.  
 b. He went to Prague in order to meet his friend.

Firbas(1974:21)는 또한 (6)와 (7)의 각각에서 a와 b의 어순의 차이를 제보력 등급의 차이로 설명하고, CD가 작은 언어요소가 왼쪽에 위치하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옛 정보 / 새정보의 개념 대신 제보력 등급의 개념으로 어순에 반영되는 기능적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하겠다.

### 3. 체계문법의 기능적 어순 원리

Halliday(1985)가 발전시킨 체계문법(systemic grammar)의 어순원리는 한마디로 주제우선원리(theme first principle)라고 할 수 있다. Morley (1985:70)의 표현을 빌면, 모든 문장은 주제구조(thematic structure) 곧 'theme + rheme'의 구조를 갖는데, 이 구조가 바로 체계문법의 어순원리인 것이다.

Halliday(1985:33-40)는 먼저, 절을 전언으로서의 절(clause as a message), 의 사교환으로서의 절(clause as an exchange), 그리고 제시로서의 절(clause as a representation)의 세 가지로 대별한다. 그리고 각각의 절에서 중심이 되는 구성소를 각기 심리적 주어(psychological subject), 문법적 주어(grammatical subject), 그리고 논리적 주어(logical subject)로 보고 있다. 여기서 심리적 주어는 주제(theme), 문법적 주어는 주어, 논리적 주어는 행위자(actor)인데, 이 세 가지 주어가 일치하는 구조가 무표적(unmarked) 어순이고, 일치하지 않을수록 유표적인(marked) 어순인 바, Halliday(1985:34)는 다음을 그 예로 제시한다.

무표 구조 :

the duke	gave	my	aunt	this	teaspoon
심리적 주어					
문법적 주어					
논리적 주어					

유표 구조 :

this teaspoon	my aunt	was given by	the duke
심리적 주어	문법적 주어		논리적 주어

표적인 어순구조가 되며, 일치하지 않을 때는 특수한 즉 유표적인 어순구조가 된다. 한편, 심리적 주어 즉 주제는 「전언으로서의 절」에서의 관심사(that which is the concern of the message)로서, 화자는 이것을 발화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고, 따라서 어떠한 문장에서도 주제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다.

Halliday(1985)는 이러한 개념을 확대하여 주제를 명사구(nominal group)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즉, 문장의 첫 위치에 등장하는 임의의 요소는 화자의 발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것을 모두 주제로 삼고 있으며, 주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논술(rheme)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Morley(1985:70)는 “The theme is thus the element which the speaker selects as the starting point of his message, and everything that follows it is the rheme”이라고 주제와 논술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의 예를 몇 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8) theme	rheme
The results	will be announced tomorrow.
Tomorrow	the results will be announced.
Announce	the results tomorrow.
Have	you seen the exhibition yet?
We	saw the exhibition last Friday.
The exhibition	we saw last Friday.
What	did you see?
Frankly	I'm amazed.
Tired	you may b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는 명사구에 국한되지 않는다. 명사구 외에도 술어(predicator), 보어(complement), 부가어(adjunct) 등 문장의 첫 위치에 등장할 수 있는 모든 구성소가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Tomlin(1986)은 402개나 되는 자연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주어, 동사, 목적어 사이의 배열순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명해 줄 기능적 원리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의 이론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4. Tomlin의 기능적 어순 원리

의 세 주요 구성소를 기준으로 하여 SVO, SOV, VSO, VOS, OSV, OVS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발생빈도를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위의 6가지 유형의 발생빈도는 다음과 같다.

	구성소 순서	언어의 수	빈도(%)
-V	SOV	180	44.78
	OSV	0	0.00
-V-	SVO	168	41.79
	OVS	5	1.24
V-	VSO	37	9.20
	VOS	12	2.99
	합계	402	100

Tomlin은 위의 발생빈도 중 SOV와 SVO간의 차이, 그리고 VOS와 OVS간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의의가 없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각 유형들의 발생빈도를 순서에 따라 도식화한다.

$$\text{SOV} = \text{SVO} > \text{VSO} > \text{VOS} = \text{OVS} > \text{OSV}$$

Tomlin은 이러한 사실의 토대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어순지배의 기능적 원리(functional principles)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원리들은 각 유형의 발생빈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 (9) a. 주제우선원리(Theme First Principle : TFP)  
: in clauses information that is relatively more thematic precedes information that is less so.
- b. 동사-목적어 결합원리(the Principle of Verb-Object Bonding : VOB)  
: the object of a transitive verb is more tightly bonded to the verb than is its subject.
- c. 유생물먼저원리(Animated First Principle : AFP)  
: in simple basic transitive clauses, the NP which is most animated will precede NPs which are less animated.

Tomlin의 TFP는 주제적 정보(thematic information)가 주어로서 문두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목적어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주제적 정보

가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의도하는 정보로서 이것이 주어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두번째의 기능적 원리인 VOB는 타동사와 목적어가 통사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원리는 이미 Behaghel (1923:4)이 언급한 바 있다.

세번째의 원리인 AFP는 더 유생적(animated)인 것이 덜 유생적인 것보다 문장에서 앞에 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Tomlin은 유생성(animatedness)을 「독립적 또는 동적인 활동의 능력」(being capable of independent or dynamic activity)으로 정의하면서 그 계층(hierarchy)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woman > monkey > dog > spider > bacteria > grass > dust > rock > tortilla > vase

또한 Tomlin(1986)에 의하면 아래 두 문장의 의미상의 차이는 바로 woman 과 dust의 유생성의 차이 즉 독립적, 동적인 활동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 a. The woman smothered the fire.
- b. The dust smothered the fire.

한편 위의 각 어순유형의 발생빈도는 Tomlin의 세 가지 기능적 원리들이 실현되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Tomlin(1986:122-25)이 제시한 도표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실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TFP	VOB	AFP
SOV	yes	yes	yes
SVO	yes	yes	yes
VSO	yes	no	yes
VOS	no	yes	no
OVS	no	yes	no
OSV	no	no	no

다시 말하여 SOV나 SVO 유형은 Tomlin의 세 가지 원리를 전부 실현시키고 있어서 그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VSO는 세 가지 원리 중 두 가지를 실현시키고 있어서 그 발생빈도가 두번째이며, VOS와 OVS는 세 가지 원리 중 단 하나만을 실현시키고 있어서 그 발생빈도가 세번째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원리들 중 어느 하나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OSV유형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Tomlin의 원리들은 우선 402개나 되는 많은 언어의 분석에서 도출되고 있

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SOV와 SVO는 Tomlin의 원리들을 전부 실현시키고 있는데 왜 어떤 언어들은 SOV로 나타나고 또 다른 언어들은 SVO로 나타나는가, 마찬가지로 동사-목적어 결합원리 하나만을 실현시키고 있는 VOS와 OVS간의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에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Tomlin은 자신의 원리들이 세계의 자연언어에 하나 이상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SOV와 SVO간의 차이 같은 문제는 다른 원리들로 설명되어야 하겠지만 이 문제는 다른 곳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 5. 결 론

본 연구는 Greenberg(1966) 이래로 본격적인 언어학적 연구가 이루어져 온 어순에 관한 내용을 역사적 의의가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개괄하였다. 어순에 관한 연구는 이미 19세기 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이 때의 어순연구는 비교, 역사 언어학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언어학의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Greenberg(1966)이후부터 이다.

본 연구는 먼저 Greenberg(1966)의 이론을 개괄하고, 이어서 19세기 Weil 등의 이론으로부터 발아하기 시작한 어순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연구를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다. Weil(1844)이나 McKnight(1897)이론의 영향을 받은 Bartsch and Vennemann(1973)의 자연적 배열의 원리, 그리고 이 자연적 배열의 원리가 생성 문법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Prague 학파가 중심이 되어 연구한 기능적 문장 구성론(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원리에 대하여 논하였다.

특히, Firbas(1964, 1974), Chafe(1976), Prince(1979), Gundel *et al.*(1993) 등의 이론을 중점적으로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시 기능의 측면에서 어순을 고찰하고 있는 Halliday(1985)의 체계문법 및 독특한 이론을 제사하고 있는 Tomlin(1986)의 이론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 ed., *Syntax and Semantics*. Vol. 2. London: Seminar Press.
- Bartsch, R. and Theo Vennemann (1973) *Semantic Structures*. Frankfurt and Main : Athenäum Verlag.
- Bates, E. (1976) *Language and Context*. Academic Press.
- Baugh, A. C. and T. Cable (1993)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Routledge
- Bean, Marian C. (1983) *The Development of Word Order Patterns in Old English*. Croom Helm.
- Behaghel, Otto (1932) *Deutsche Syntax*. Vol.4. Heidelberg: Carl Winters Univ.
- Brown, H.D.(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 Chafe, W. L. (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harles N. Li ed., *Subject and Topic*. Academic Press.
- Chomsky, Noam (1957) *Syntactic Structures*. Hague and Paris: Mouton.
- Clark, H. H. and E. V. Clark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An Introduction to Psycholinguistics*.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Comrie, B.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Oxford: Basil Blackwell.
- Daneš, F. (1967) "Order of Elements and Sentence Intonation." *To Honor Roman Jakobson*. Hague: Mouton.
- Firbas, J. (1964) "From Comparative Word Order Studies." *Brno Studies in English*. 4.
- \_\_\_\_\_. (1974) "Some Aspects of the Czechoslovak Approach to Problems of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in F. Daneš ed.,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Prague: Academia.
- Fromkin, V. et al.(2003) *An Introduction to Language*. Thomson.
- Givón, T. (1975) "Serial Verbs and Syntactic Change: Niger-Congo." in C.N.Li ed., *Word Order and Word Order Change*. Austin: University of Texas.
- \_\_\_\_\_.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Academic Press.
- Greenberg, J. H. (1966)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in J. H. Greenberg ed., *Universals of Language*. Mass.: MIT Press.
- Gundel, J. K. et al. (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69. 2. 275-307.
- Halliday, M. A. K. (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 Hawkins, J. A. (1983) *Word Order Universals*. New York: Academic Press.
- Hockett, C. F. (1963) "The Problem of Universals in Language." in J. H. Greenberg ed., *Universals of Language*. M.I.T. Press.
- Mckinght, G. (1897) "The Primitive Teutonic Order of Words."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1.
- Morley, G. D. (1985) *An Introduction to Systemic Grammar*. London and Basinstoke:

- Prince, E. F. (1979) "On the Given/New Distinction." *Papers From the Fifteenth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 Radford, A.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A First Cour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lobin, Dan I. (1979) *Psycholinguistics*. 2nd ed., Scott, Foresman and Company.
- Stockwell, R. P. (1977a) *Foundations of Syntactic Theory*. Prentice- Hall, Inc.
- Tomlin, Russell S. (1986) *Basic Word Order: Functional Principles*. London: Croom Helm.
- Weil, H. (1844) *Order of Words in the Ancient Languages Compared With that of the Modern Languages*. Boston: Ginn and Company.

현완송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전자우편: wshyun@cheju.ac.kr

접수일자: 2005년 8월 20일

게재결정: 2005년 9월 15일